

건강도시와 조경

LANDSCAPE FOR HEALTHY CITY

현대 도시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 산업화는 기술과 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촉진했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었다. 생산성 없는 땅들은 사치라는 듯 조금의 여백도 남기지 않을 기세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수록 생활환경은 척박해졌다. 편리와 공생을 위해 사람이 모인 도시는 곧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유로 주거, 교통, 쓰레기, 환경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인구 과밀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최초의 산업혁명 이래로 모든 도시는 인간에게 독을 뿜었고, 도시와 조경 계획은 그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세기 말부터 'Health for All' 원칙에 기반해 건강도시(Healthy City)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 도시'란 도시민의 건강과 동시에 '도시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도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녹지 확보는 물론, 도시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생과 지속을 위한 다차원적·다분야적 협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얻어진 건강한 삶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요구된다.

건강과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주민참여는 조경가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건강'은 이미 19세기에 옴스테드가 뉴욕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때부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제시한 처방전이었다. 또한 건강은 보건, 의료, 환경, 복지,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으며, 도시는 이 복잡한 관계를 품는 유기적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산업 시대를 지나 '스마트 도시' 시대에 접어든 지금, '도시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건강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2021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건강도시와 조경'이라는 큰 키워드 아래, 보다 확장된 도시 및 환경적 맥락에서 통찰력 있는 질문과 담론을 형성할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접수기간

2021년 8월 24일(화) ~ 8월 26일(목) (18:00 마감, 마감 이후 접수 불가)

참가자격

- ▶ 조경·건축·도시계획·산림·디자인 등 관련 대학(원)생 개인 및 팀
- ▶ 팀은 5명 이하로 구성하며, 팀별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
(단, 2개 이상의 작품에 중복 등재 불가)

출품부문

- ▶ 대상지 규모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 부문'으로 작품 접수

시상내역

- ▶ **대 상(1점):** 국토교통부장관 상장, 상금 500만원
- ▶ **금 상(1점):** 늘푸른재단 이사장 상장, 상금 300만원
- ▶ **은 상(2점):** 한국조경학회장·한국조경협회장 상장, 상금 각 200만원
- ▶ **동 상(3점):** 한국조경설계협회회장·영남지회장·호남지회장 상장, 상금 각 100만원
- ▶ **장려상(5점):** 환경과조경 발행인 상장, 부상(환경과조경 1년 정기구독권)
- ▶ **입 선(10점):** 한국조경학회장 상장, 부상(도서출판 한숲 단행본)
- ※ 지도교수상: 한국조경학회장 상장(동상까지 수여)

일 정

- ▶ **심 사:** 2021년 8월 28일(토) / 환경과조경
- ▶ **시 상 식:** 2021년 10월 12일(화) / 마포문화비축기지 T2(예정)
- ▶ **작품전시:** 2021년 10월 12일(화) ~ 10월 17일(일) / 마포문화비축기지 T2(예정)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주최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주 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회

주 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 (주)환경과조경

후 원 (재)늘푸른

심사위원

- ▶ **위원장:** 박명권(그룹한 어소시에이트)
- ▶ **위 원:** 김정윤(오피스박김), 김현민(스튜디오일공일), 신보미(국토교통부), 이윤주(LP SCAPE), 이호영(HLD), 정재윤(James Corner Field Operations)